

#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공정의 정치 하겠다”

●이동수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 ‘5전6기’ 끝에 의회 입성...초선·무소속 한계 극복 “집행부 견제 속 의장과 함께 가교 역할 충실” 약속

‘5전6기’ 도전 끝에 목포시의원에 당선, 화제가 됐던 이동수 목포시의원이 초선과 무소속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돼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동수 의원(65·상동, 삼향동, 옥암동·사진)은 9일 실시된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1차 선거에서 총 22표 중 12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정권 발표에서 “며칠 동안 고민의 고민을 하느라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목포시 의원으로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현재 시의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후반기 부의장은 어떠한가 하는가 묻고 또 물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현재 시민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합숙을 쉬고 있고, 전례 없는 세수 감소로 악화된 목포시의 재정엔 위기를 돌파할 근간마저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저는 소통과 포용이 절실하다고 생각해 제가 먼저 의원실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제와 소통도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에 대해 “시의회의 기본 임무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 간 오해가 없도록 소통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의장을 도와 집행부와 시의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목포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덕장(德將)이 되겠다”며 “언제나 기낼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소수를 배려하고 포용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바르고 의로운 부의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더 잘 사는 지역,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실현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 함께 사는 포용과 공정의 정치를 하겠다”며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처음처럼 소통하고 섬기고 또 한 번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목포시의원 선거 바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3.37%를 얻어 의원 정수 3명 중 3위로 당선됐다. 지난 2002년 목포시의원 선거에 첫 출마한 이후 내리 5번을 낙선했음에도 2022년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6번째 도전 끝에 민주당 후보 3명 중 1명을 제치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목포시 삼향동 토박이인 이 부의장은 무안군과 전남도4현연합회장, 이재명 후보 직속 대전환 목포시농어촌발전 특보단장, 목포시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목포신안농어촌공사 명예지사장, 목포시농업농촌농식품부 심의위원을 역임한 농업 전문가다. /목포=정해선기자



영암경찰, 납치 차량 특정 관제요원 표창장

영암경찰서는 9일 “전날 납치 의심 차량 특정에 기여한 영암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여 받은 관제요원은 지난달 21일 오후 여성을 납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경찰이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 도로 CCTV를 실시간으로 판독해 차종과 차량번호를 확인해 사건 해결에 기여한 유공을 인정 받았다.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은 “관제요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덕분에 납치 의심 신고를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영암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전한 영암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 동강대-대만 남태과학기술대학 ‘국제교류’ 활발

1995년 자매결연 후 매년 상호방문

동강대학교가 자매학교인 대만 남태과학기술대학과 활발한 교류 활동으로 30년지기 독특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9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대만 남태과학기술대학 총장, 왕후빙 비서실장, 왕계주 국제교류처장, 임교화 국제교류팀장, 전정우 국제교류팀장 등 5명의 방문단을 맞이했다. 동강대는 지난 1995년 남태과학기술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7월과 12월 교직원 교류 행사를 갖고 있다. 이민숙 동강대 총장은 오는 12월12일 남태과학기술대학 5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남태과학기술대학 방문단은 이민숙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간호학과

시설을 살펴보고 학교법인 기념관, 동강대 박물관, 국제교류원과 한국어학당, 글로벌 존 등을 둘러봤다. 주덕광 남태과학기술대학 총장은 “오는 12월 창립 55주년을 맞는 우리 대학이 30여년간 교류를 맺고 있는 대학이 동강대 유일하다”며 “동강대는 개인적으로 교수 임용 첫 해외 출장지였고 총장 선임 후 첫 국제 교류 학교 방문이어서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민숙 총장은 “남태과학기술대학은 최근 스마트 제조 기술 센터, 스마트 건강 의료 기술센터, 스마트 전기 자동차 기술 센터, 스마트 그린 에너지 기술센터, 스포츠 기술 센터 등 새로운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AI시대 새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은 우수한 남태과학기술대학과 교류를 통해 두 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깊은 우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기자



여주소방, 7월 '당신이 최고' 수여식

여주소방서는 9일 “전날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당신이 최고'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7월 '당신이 최고'는 김승소 소방장, 김도진 소방장, 임준호·이성범·김태홍 소방교, 박태훈 소방사가 수상했다.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 및 경계근무에 힘쓴 대응구조대의 현장대응단 직원들과 평소 현장 활동을 열심히 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수상이 결정됐다. 박원국 서장은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 기간 고생한 직원들과 현장 활동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린 직원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수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 광주매일신문, 희망나눔아동센터 'NIE 순회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8일 광주 광산구 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이론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신나게·재밌게·함께 만드는 학교신문·가족신문’ 교재를 활용에 진행됐으며, 어떤 사안이 뉴스가 되는지와 뉴스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또 글을 잘 쓰는 방법, 기사의 특성에 대한 이론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연희(영천초 6)·김은율(월곡초 5)·이재율(월곡초 5) 학생은 신문 만들기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 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 한전KPS-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 '동반성장' 협약

한전KPS와 (사)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첨단 사회적협동조합 스마트팜에서 협약식을 갖고 지속 동반 성장을 통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찬우 KPS 소장과 김갑주 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은 KPS의 '1사업소 1대표 사회공헌 활동'에 따라 사랑의 푸드트럭 운영 및 저탄소·LED 스마트 팜 농장 체험사업 지원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전KPS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홍보 및 자립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지원에 나선다. /임재만기자

은 KPS의 '1사업소 1대표 사회공헌 활동'에 따라 사랑의 푸드트럭 운영 및 저탄소·LED 스마트 팜 농장 체험사업 지원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전KPS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홍보 및 자립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지원에 나선다. /임재만기자



담양군 모범공무원 '총리·도지사 표창' 수상

담양군 공무원 이수미(사진 오른쪽서 두 번째)·송경근(사진 오른쪽)·장기민(사진 왼쪽)씨가 국무총리 표창장과 도지사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담양군 민선 8기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이수미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장과 송경근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장기민 참여소통실 홍보주무관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수미 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민원을 개선하고자 Arc GIS 시스템과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해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속한 업무 처리 성과를 냈다. 송경근 팀장은 교통 혼잡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됐던 읍내 교통 소통을 위해 주정차 시간 단축 조정으로 차량 교행 등을 해결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했다. 장기민 주무관은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균정 시책과 지역 발전 소식을 널리 알린 것은 물론, 각종 행사 기획 홍보자료 등을 제공해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을 유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GIST, 국제 음향대회 '오디오 소스 분리 부문' 1위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9일 “김홍국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연구팀(사진 왼쪽부터 김홍국 교수, 이도현·송윤하 학생)이 국제 음향장면 및 이벤트 탐지 분류 경진대회에서 ‘언어질의 기반 오디오 소스 분리 부문’ 1위, ‘실내 음향 이벤트 탐지 부문’ 3위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오디오지능연구실 학생들로 구성된 ‘GIST-AunionAI’팀은 김홍국 교수가 창립한 오니온 에이아이(OunionAI)의 지원을 받아 ‘DCASE 챌린지 2024’의 ‘언어질의 기반 오디오 소스 분리 과제’ 부문에서 1위를 달성,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언어질의 기반 오디오 소스 분리(LASS) 기술’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에 따라 이에 맞는 오디오 신호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텍스트 질의를 통해 오디오 소스를 분리 생성



함으로써 언어와 오디오를 연결하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며 자동 오디오 편집, 멀티미디어 콘텐츠 검색, 증강 청취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실내의 음향 이벤트 탐지 기술’은 실내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차량 소리 등 27종류의 다양한 소리를 AI를 통해 탐지 및 구별하는 기술이다. /김대기자



## 강사랑환경대학, 시립수목원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학장 박기중, 대표 고광현)은 최근 광주 남구 동동길 시립수목원 주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환경정화 공익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수목원정원사업소,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밀알신문 등이 후원해 회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립수목원에서 여러 시설을 탐

방한 뒤 폐기물 수거 등으로 진행됐다. 강사랑환경대학은 연말까지 광주권내 강·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강사랑환경대학은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10기까지 모두 27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현재 제11기 과정은 이달 말까지 운영된다. /장은정기자

## 본사손님

▲김형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 ▲김종기 전남도 차지행정국장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